



### TRT는 來年發効展望

—美등 先進國서 서둘러—

商標登錄條約(TRT)에 대하여 美國을 中心으로한 技術先進國들은 늦어도 1980년에 發効시키려 서둘고 있다. 특히 西獨은 TRT와 유럽商標協約에서의 主導權을 掌握하고자 自國內體制를 整備中이며 1월부터 서비스·마크의 登錄制度를 採用하였다.

한편 日本도 特許廳內에 商標制度檢討委員會를 設置하고 TRT加盟을 準備中인데 同委員會는 TRT小委員會 外에 서비스·마크小委員會, 國際分類小委員會등 3個小委員會도 構成하고 있다.

현재까지 TRT에 가맹한 나라는 가봉, 토고, 오트볼타, 콩고등 아프리카域內國家들 뿐이며 條約도 發効되지 못하고 있다.

원래 이 조약은 5年前에 美國이 提唱하여 署名까지 해놓고 오히려 미국이 가맹하지 않고 있어 餘他先進國들도 가맹을 躊躇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가맹을 주저하는 主要한 理由는 自國內 獨禁法과의 調整을 위한 對國會工作이 難航하고 있을 뿐더러 最近에는 特許分野에서와 같이 트레이드·마크분야에서도 先後進國에 原產地名稱表示問題로 對立이 激化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후진국이 主張하는 파리條約의 大幅의인 改正을 反對하면서 새로운 國際制度인 TRT에 積極의인 姿勢를 取함으로써 國內外에 對處하려는 것이며 늦어도 來年까지는 TRT를 발효시키려는 心算이다.

한편 일본도 PCT에 加入한 다음 TRT가입에도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委員會까지 設置하고 TRT小委員會에서는 國際出願 및 國內出願의 相互調査方法과 現行審査平均期間 15個月을 크게 短縮하는 課題를 研究中이며

서비스·마크小委에서는 保護對象業務範圍등을 檢討中이다. 또한 保護대상을 營利的인 面뿐아니라 宗教法人·學校法人 등의 標章도 대상으 로하고 文部省과도 協議中에 있다.

國際分類小委에서는 現行分類를 니스協定에 의거한 분류로의 移行을 검토중이며 앞으로 니스협정에도 가입하려는 氣勢이다.

### 西獨, 서비스마크法制化

—ETC發効앞서 1월부터—

西獨은 1월부터 서비스마크의 保護를 制度化하였다. 서독의 이번 措處는 유럽諸國이 서두르고 있는 유럽商標協約(ETC)에 서비스마크의 保護에 관한 規定이 設定되고 서비스마크에 대한 西獨特許廳의 取扱에 不滿이 나타나는 裁判이 늘고 있는데 對應하려는 것이 다.

美·佛·加國등 여러나라에서는 이미 서비스마크를 保護하는 制度를 採用하고 있으며 이번 서독의 결정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도 法制化를 서두를 것이 確實視된다.

### 中共도 特許制度準備中

—國際化도 希望하는 눈치—

中共은 商標條例 以外에 손을 못대고 있던 工業所有權制度를 앞으로 갖추려는 조짐이 보인다.

最近 日本을 訪問하였던 中共의 國家科學技術委員會 主任인 武衡의 말을 빌면 國際活動의 進路는 앞으로 國內態勢가 整備되는대로 檢討하고 싶다는 意思를 表示한 것으로 미루어 工業所有權保護體制를 서두르는 것 같다.

또한 武衡을 團長으로한 이른바 工業所有權制度研究



代表團 1行은 日本을 찾은 자리에서 ① 올봄에 特許 關係專門家로 構成되는 調查團의 中共派遣 ② 中共研修生의 日本受容등을 希望하였다고 外信이 報道하고 있다.

### UPOV加盟 準備

—日, 오는 10月까지 目標—

1968年 8月에 發効된 植物新品種의 保護에 관한 國際協定(UPOV)에 日本이 加盟할 準備를 갖추고 있다.

이 協정에 加맹한 國家는 英, 西獨,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벨지움,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남아프리카등 10個國이며 日本이 이에 加맹하려면 國內準備措施등으로 미루어 오는 10月쯤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豫測되다.

이에 앞서 日本은 지난 國會에서 農産種菌法의 改正으로 國內體制가 整備되어 新品種의 國際交流를 活潑히 展開할수 있게 되었으므로 耐病性農産物의 育成이 切迫한 點등도 加맹의 必要性을 促求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4POV의 加盟許容署名開放期間인 今年 10월 까지 모든 준비를 갖추어 同協定은 加盟各國에서 植物新品種育成者의 權利를 特許法 또는 特別法으로 保護하게끔 義務가 負荷되어 있다.

이 協정의 내용은 內外國人平等의 原則, 優先權, 그리고 보호되는 權利는 各 登錄國마다 獨立된다는 원칙, 最少限保護되는 식물을 決定하는 의무, 보호의 要件, 名稱의 登錄, 파리同盟과의 關係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日本의 現行法은 식물신품종에 관한 보호를 農産種菌法과 特許法의 2個法으로 되어 있으며 이 법들은 新品種을 育成했을 경우 그 명칭을 등록해 주려는 것이지 育成技術을 保護하려는 것은 아니다.

또한 特許法은 育成過程에서의 反覆可能性을 要求하고 있을뿐 種苗業者가 交配를 하거나 신품종을 育成하

려는 것들은 對象外로 되어 있어 兩法이 모두 식물신 품종보호에는 不充分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國會會期동안에 農産종교법을 개정하여 이를 補完하게 하였으며 이 법에 의해 새로 만들어지는 품종은 그것이 突然變異일지라도 그 種子를 栽培하여 같은 종자가 採取되면 등록이 認定된다. 특히 특허법과 같이 育成과정에서의 반복가능성은 關與하지 않는다.

### 부다페스트條約 加盟準備

—日, 微工研을 國際機關으로—

日本은 「特許節次를 目的으로한 微生物寄託의 國際的 承認에 관한 條約(부다페스트條約)」에의 加盟을 서두르고 있다.

今年에 加맹을 目標로한 同條約은 微生物을 利用하는 發明에 대하여 複數國에 出願할 경우 條約에서 選定된 國際寄託機關에 그 微生物을 기탁함으로써 出願國別로 절차를 밟아야할 번거로운 기탁이 免除된다.

이에 앞서 日本은 微生物의 發明에 관한 출원에 대하여 工業技術院微生物工業技術研究所에 기탁시킨 다음 寄託番號를 記載하여 출원토록 規則을 制定하고 지난 1973년부터 實行하고 있다.

따라서 日本은 이 工技院微工研을 國際寄託機關으로 指定引受하도록 條約當局에 申請할 豫定이다.

이 부다페스트조약은 英國이 1972년에 헝가리의 부다페스트外交官會議에서 提唱하여 採擇되었으며 이때 29個國이 參加하였고 그후 많은 나라가 署名한 國際條約인 것이다.

日本이 이 조약에 加맹하려면 前記한 국제기탁기관이 마련되어야 하고 또한 條約規則에 따라 方式의 統一과 外國에서의 微生物기탁 때의 防疫問題등의 準備를 서둘러야 한다.



### 放電加工技術 特許紛爭

—설미서 日本메이커相對로—

스위스의 電機綜合메이커인 설미는 日本의 放電加工 機業者들을 相對로 放電加工技術에 관한 特許侵害를 理由로 製造販賣中止를 警告하였음이 最近 밝혀졌다.

警告를 받은 企業들은 자파스등 3 個社로 알려졌으며 설미의 主張은 同一電極으로서 粗加工에서 最終加工을 하기 위한 電極과 被加工物의 相對的 移動이라는 特許 즉 1 個의 電極으로서 粗加工서부터 최종 가공까지의 가공을 위하여 電極이나 被加工物의 어느 쪽을 相對的으로 움직이면서 가공한다는 原理特許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미가 주장하는 특허는 프랑스의 랑제핀이 開發하여 1960年 8月 26日에 日本에 特許出願, 日本特許 第 478980號로서 1966年 3월 4일에 公告된 것을 설미가 지난해 8월에 買受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설미는 昨年 10月末 大阪에서 열린 國際工作機械見本市의 開催直前に 日本의 방전가공업자를 상대로 이 특허는 설미의 所有이므로 이와 類似한 裝置를 제조, 판매함은 특허침해가 된다는 內容의 案內狀을 配布하는 한편 자파스등에 제조, 판매의 중지를 경고했다.

이 특허와 유사한 製品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은 자파스와 牧野푸라이스製作所, 三菱電機, 日立精工, 黑田精工등이 있는데 이들 一部의 주장인즉 自己네는 스웨덴系的 시스템·스리알 日本으로부터 同裝置를 購入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問題될 것이 없다는 見解이다.

그러나 설미의 주장에 대하여 일부 기업들은 그 경고를 檢討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美·日間 特許紛爭 增加

—MC등 特許侵害訴續出—

美 카네이·앤드·트레카(K&T)는 自社の 美國內特許인 매시닝센터(MC)를 日本製 MC의 一部들이 侵害하고 있다는 理由로 日本內 數個企業에 特許供與에 관한 意思를 正式提議하였다.

K&T는 世界에서 처음으로 MC를 製品化한 會社이며 美國內外에 여러 特許를 出願하여 特許權을 保有하고 있는 國際企業이다.

이번에 問題가 提起된 특허는 MC의 基本特許가 될 키오리엔테이션특허로서 1989年 12月까지 특허의 存續期間이 남아 있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해 10月末부터 大阪에서 열린 國際工作機械見本市를 前後하여 K&T責任者들이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 9월에 美國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쇼에 出品한 製品에서 特許侵害를 認知하고 정식으로 특허공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특허공여조건은 技術料額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것뿐 아니라 日本製品的의 對外輸出이 增加됨에 따라 美國등 外國特許權者들은 至大한 關心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에 앞서 東芝機械는 지난 5月頃 K&T와 MC에 관한 특허의 綜合的인 實施契約을 맺은바 있다.

그러나 키오리엔테이션특허에 대하여는 많은 日本企業들의 日製 MC가 K&T의 특허에 抵觸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미 繁爭中인 事件도 있다.